

OECD/DAC 2004년 ODA 통계

I. ODA 규모

- 2004년도 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786억불로서 사상 최고치 기록(2003년도는 690억불)
 - 인플레이, 달러 하락을 고려한 실질가치로 계산시 2003년에 비해 4.6% 증가(2003년도는 2002년도보다 4.3% 증가)
- ODA/GNI 비율은 0.25%로써 2003년과 동일 수준(2002년도 0.23%, 2001년도 0.22%)
- ODA 증가 주요 요인
 - 국제기구 기여금 및 출자금 증액(37억불)
 - 아프간, 이라크 지원 증가(15억불)
 - 기술협력 증가(12억불)

II. 주요 ODA 순위

- 규모별 : 미국(190억불), 일본(89억불), 프랑스(85

억불), 영국(78억불), 독일(75억불)순

- ODA/GNI 비율: 노르웨이(0.87%), 룩셈부르크(0.85%), 덴마크(0.84%), 스웨덴(0.77%), 네덜란드(0.74%)순이며, 동 5개국만이 UN 목표치 0.7% 초과

III. 주요 ODA 동향

- 22개 DAC 회원국 중 15개국의 ODA 규모 증가
 - 벨기에, 이태리, 네덜란드 등은 감소
- 미국의 ODA는 190억불로써 2003년(163억불)에 비해 실질가치로 14.1% 증가
 - ODA/GNI 비율은 0.15%에서 0.16%로 증가한 바, IDA에 대한 출자금(18억불) 및 아프간(8.7억불), 이라크(29억불)에 대한 원조 증가에 주로 기인
 - 미국의 ODA가 DAC 회원국 ODA 총액의

- 24.2%를 차지하여 198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
(1995년 최저치 12.5%에 비해 거의 두 배)
- 일본의 ODA는 89억불로써 ODA/GNI 비율은 0.19%이며 전년에 비해 실질가치로 4.8% 하락
 - 15개 EU 회원국의 ODA 합계는 429억불이고 ODA/GNI 비율은 0.36%로써 DAC 전체의 55%를 차지하였으며 전년(371억불)에 비해 실질가치로 2.9% 증가(EU 국가들의 주요 원조증가 내용 및 주요 요인 아래 참조)
 - 오스트리아(22%)는 채무탕감
 - 그리스(13.1%)는 기술협력 및 긴급원조
 - 룩셈부르크(10.5%)는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출자금 증가
 - 포르투갈(187.5%)은 앙골라 채무탕감으로 인해 예외적 증가
 - 스페인(14.5%)은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금
 - 영국(8.8%)은 프로젝트원조 증가 및 채무탕감
 - 덴마크(3.5%), 핀란드(5.9%), 프랑스(4.3%), 아일랜드(2.2%), 스웨덴(1.4%)도 증가
 - EU 국가들의 주요 공약현황
 - EU는 2006년까지 0.39% 달성 목표
 - 벨기에는 2010년까지, 프랑스는 2012년까지 0.7% 달성
 - 스웨덴은 2006년까지 1% 달성
 - 스페인은 2006년에 0.33%, 2008년에 0.5% 달성
 - 영국은 2007~8년에 0.47%, 2013년까지 0.7% 달성
 - 아일랜드는 향후 수 년 내 0.7% 달성
 - 독일, 그리스, 이태리 등은 국가별 최소목표치 0.33% 달성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
 - DAC 회원국들이 ODA 확대공약을 준수할 경우 2005~6년에도 ODA 규모는 상당히 증가하여 2006년까지 ODA/GNI 비율은 0.30%까지 올라갈 전망이다.
 - 2005년 2월 공여국들은 IDA에 대한 출자금 180억불 지원 합의
 - 미국, 영국, 프랑스 등 주요 공여국들이 양자원조 예산 확대 추진중
 - 인도양 지진해일 계기 대규모 원조 약속
 - 2004년 말 파리클럽은 이라크 채무탕감조치 합의(2005년도 150억불 예상)

[자료:주오이시디 대표부]